

“자산 경계 허문다”… 박현주, ‘디지털 엑스’ 대전환 선언

(미래에셋그룹 회장·글로벌전략가)

‘미래에셋 3.0’ 투자 플랫폼 구상 공개
STO·RWA 통해 실물자산 디지털화
포트폴리오 제안부터 매매까지 연결
내년 최대 3000억 추가 증자도 추진

“디지털 엑스(Digital X)는 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서 간판을 바꿔 단 디지털 엑스를 그룹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으로 키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에 머물지 않고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까지 아우르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거래 수수료와 관련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500억원 유상증자에 이어 내년 최대 3000억원의 추가 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외형 확대에는 과감히 자본을 투입하되 고객자산 보호와 내부통제에는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이 같은 사업 구상을 밝혔다. 미래에셋이 디지털엑스 경영권을 확보한 뒤 박 회장이 전 임직원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미래에셋 3.0’을 설명하며 디지털엑스를 이를 구현할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디지털엑스의 오세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는 단순 가상자산거래소를 넘어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인 거래 넘어 ‘지능형 투자 플랫폼’으로

박 회장은 디지털엑스의 사업 영역을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등 4개 축으로 제시했다. 금과 은, 전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의 기반인 ‘온체인 파인런스’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이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엑스(Digital X)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er’에서 박현주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발언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박 회장은 “단순히 주식 사고팔고, 코인 사고파는 세상이 아니다”며 “그런 세상은 5년 안에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자산과 투자 성향을 분석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제안하고 실제 매매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증권사의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기술이 결합한 이 같은 체계를 ‘뉴 파인런스’로 규정했다.

그는 “증권사 시스템은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구글이나 퍼플렉시티, 오픈AI 등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다’고 제안해 버튼을 누르면 그날 매매가 되는 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STO 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STO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자산을 잘게 나뉘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디지털엑스를 가상자산매매에 한정된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나뉘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금융상품과 글로벌 투자자산을 RWA와 STO로 연결하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넓어진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 고객자산이 증권과

운용사를 합쳐 1500조원을 조금 넘어간다”며 “여기서 디지털자산으로 150조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수료 포기하고 최대 3000억원 더 넣는다

디지털엑스는 고객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원화마켓 전 종목의 메이커-테이커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인 상황에서 단기 이익보다 고객 기반 확대를 우선한 것이다.

다만 박 회장은 “수수료 무료화를 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기보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와야 한다”며 단순한 수수료 경쟁과는 거리를 뒀다. 거래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투자자와 다양한 투자자산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플랫폼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자본확충도 본격화한다. 디지털엑스는 지난 12일 50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 컨설팅이 신주 전량을 인수하며 납입일은 27일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앞서 약 1414억원을 들여 디지털엑스 지분 97.15%를 확보했다. 이번 증자까지 합하면 인수와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금액은 1900억원을 넘어선다.

박 회장은 디지털엑스의 흑자 달성을 전제로 내년 1분기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

으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황에 따라 디지털엑스 고객에게 증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가 자금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증자를 해서 다양한 글로벌 투자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며 “디지털엑스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디파이엔 ‘금융질서우선’

박 회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의 외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모든 기술과 상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과 기존 금융·통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효용에는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박 회장은 “결제의 본질은 페이먼트”라며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 하나로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결제 매개수단으로 반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굉장히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보다 기존 결제·송금 체계와 비교

해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통화·재정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박 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 국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용자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국제 수요를 확대하고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보더 탈중앙화금융(DeFi)에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에서 크로스보더 디파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간 자금 이동이 통화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한국의 리더 그룹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일부가 돈을 벌었지만 국가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역시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보다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도 설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박 회장도 현재 거래소 업계의 관행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내 거래소의 무분별한 알트코인 상장을 두고 “한국 거래소에만 300개인데 나는 이것을 사기 쳤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고칠 것은 고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고객자산 보호와 내부통제도 디지털엑스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직원이 관리하는 고객 자산은 고객의 미래가 걸린 자산이라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직을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미래에셋, 日 증권사 인수 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서학개미, 조정장에도 ‘올인’

ETF 넘어 현지 판매망 확보
인수 대상·거래규모 등 미확정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7일 ‘퐁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토스증권과는 무관하게 일본 증권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이날 미래에셋과 토스증권이 각각 일본 현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인수 대상과 거래 규모, 추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재공시 예정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일본과 호주 법인 신설안을 승인하며 해외 사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 현재 미국·

홍콩·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신흥국에서는 현지 종합증권사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은 2019년 다와증권그룹과 합작해 ‘글로벌 X 재팬(Global X Japan)’을 설립하는 등 일본 ETF 시장에도 공을 들여왔다. 글로벌 X 재팬의 운용자산은 지난 5월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6월 말 기준 1조1400억엔(약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운용자산은 약 7.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89.7%를 기록했다.

현지 증권사 인수 검토 역시 일본 시장에서 운용뿐 아니라 판매 기반까지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수가 성사되면 글로벌 X 재팬의 ETF 상품 경쟁력과 현지 증권사의 고객망을 결합해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SOXL에 8.9억달러 ‘통큰 베팅’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반도체·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 18~24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상장지수펀드(ETF)’(SOXL)였다. 이 기간 매수 결제액은 18억5728만달러, 매도 결제액은 9억6613만달러로 집계돼 순매수 규모는 8억9115만달러에 달했다.

순매수 2위는 샌디스크(1억94만달러), 3위에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8412만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8위 브로드컴(4503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상위 10개 중



따봉AI로 생성한 ‘반도체·메모리 관련 종목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목 가운데 4개가 반도체·메모리 관련 자산으로 채워졌다.

주가 하락을 틈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엔비디아는 4년 만에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25일에는 마이크로닉이 4분기 매출 가이드언스를 예상보다 8% 낮추면서 5.8% 넘게 급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이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뎀터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올린하

며 베팅한 셈이다.

다만 반도체 쏠림 속에서도 빅테크·지수 추종 자금은 균형주 역할을 했다. 알파벳클래스A(5770만달러)가 4위, 스페이스X 관련 투자상품(5220만달러)이 6위에 올랐다. 대표 지수 ETF도 상위권을 지켰다. 뱅가드 S&P500 ETF(5015만달러),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4341만달러)가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했다.

배경에는 매크로 환경 개선이 자리잡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하락, 부진한 경제지표에 이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미국)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며 “특히 고밸류 성장주와 반도체주에 우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4일 미국 재무부가 국제 바이백 자금 조달에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미국 국제 금융세는 멈췄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